

가맹점-이용자-라이더 상생 모델 제시

음식 배달 앱 (주)신한은행, 땡겨요 ★★



(주)신한은행의 땡겨요가 '2024 국가산업대상' 음식 배달 앱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2년 연속이다.

'땡겨요'는 특화 서비스인 비대면 스마트 주문 서비스 '매장식사'를 통한 혁신과 더불어 가맹점과 이용자, 라이더까지 배달 앱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업계 내외의 호평을 받아왔다.

땡겨요는 론칭 때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에는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면제하고 중개 수수료율은 업계 최저인 2% 수준으로 유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빠른 정산은 무료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니즈 파악부터 시작한 특화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땡겨요는 이용자 관점에서 서울을 비롯해 충북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땡겨요상품권 결제 시 최대 15% 할인)과 상시 이벤트와 브랜드 쿠폰 및 사장님 쿠폰 등 여러 쿠폰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 앱'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인 신한은행이 만든 배달 앱이라는 점에서 땡겨요의 차별화된 면모가 더욱 돋보인다.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 '소상공인 매일 땡겨드림대출'이 있다. 이상품은 일 매출액 변동으로 안정적 영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일 일정한 금액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소상공인의 니즈를 분석



해 대출 심사의 문턱을 낮춰 개발했다.

이용자를 위해서도 금융과 연계된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 시 신한은행 계좌로 결제하거나 땡겨요 적립 잔액을 3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20%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하는 시도로 신한은행의 사회적 금융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한은행은 땡겨요 고객과 가맹점이 상생하는 혁신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유지영 기자 yjy777@donga.com

중소기업 업무 지원... 비즈니스 성과 견인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IBK기업은행, IBK BOX



IBK기업은행(대표 김성태)의 IBK BOX가 '2024 국가산업대상'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IBK BOX'를 선보여 금융 서비스 영역을 넘어 비금융 서비스까지 기업의 다양한 경영 활동을 디지털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IBK BOX는 'Business Operation eXpert'의 줄임말로 자금, 경영관리, 판로 등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중소기업이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플랫폼 한 곳에서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IBK BOX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자금지원,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 크게 3가지 부문이다. △자금지원 서비스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이는 '대출통로BOX'를 비롯해 '정책자금BOX' '혁신투자BOX' 등이 있다. △경영지원 서비스는 무료 모바일 앱 포스기 'BOX POS'와 '기계거래BOX' '장부수급관리' 등이 있으며 △판로지원 서비스는 판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개척' '기업홍보관' 등이 있다. 특히 지난 3월 출시된 '대출통로BOX'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한 대출신청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 문턱을 완전히 없



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출통로BOX는 은행 방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생업으로 은행 영업시간 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출시됐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 고객이 대출통로BOX에서 대출 신청 정보 입력, 서류 제공 등에 동의하고 대출 신청을 완료하면 영업점 직원이 연락해 대출 상담을 진행한다. 대출통로BOX 서비스 도입으로 소모적인 업무가 크게 경감되고 기업 대표자가 여러 번 은행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신아 기자 sina@donga.com

컨설팅 등 사업 다각화... 종합 통신 유통 플랫폼 도약

통신 유통 플랫폼 (주)kt m&s, 코코넷



(주)kt m&s(대표 안치웅)의 코코넷이 '2024 국가산업대상' 통신 유통 플랫폼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kt m&s는 중소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통신 판매 대리점을 위한 '코코넷' 플랫폼에 유무선 통신요금 계산기인 '코코넷 컨설팅'과 통신 전문 종합 소포털인 '코코넷 Mall'을 추가했다.

현재 운영 중인 통신 유통 플랫폼 코코넷은 2022년 론칭한 '코코넷 허브'의 기존 아날로그 방식 통신 단말기 재고관리 및 물류 서비스를 자동화 기반으로 개선했다. 1만2000여 통신 판매 대리점이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2024년에는 코코넷컨설팅과 코코넷 Mall을 추가

하며 진정한 종합 통신 유통 플랫폼으로 한 단계 진화했다.

코코넷 컨설팅 서비스는 통신 유통 플랫폼 코코넷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 구매 환경을 지원한다. 요금제 비교, 고객 가입신청서 출력 등 기존의 솔루션 툴에 더해 재고 조회와 원클릭 스마트 물류 서비스, 원클릭 가입신청서 작성, 원클릭 중고폰 가격 확인·판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통신 판매 대리점은 고객에게 더 저렴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코코넷 Mall 서비스는 부가 상품인 케이스, 필름, 충전기, 케이블, 보조 배터리를 공장과 직접 연결하는 풀플먼트 서비스를 도입해 온라인 최저가로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뿐 아니라 전국



커서비스, 고객 사은품인 화장지, 물티슈 등도 구매 가능해 국내 최대의 통신 판매 업종 전문 소포털로 운영된다.

한편 코코넷 플랫폼은 향후 단계별로 거점별 MFC 구축, 마케팅 서비스 출시 등으로 전통적인 통신 판매 관행을 타파하고 차별화된 혁신 요소를 도입해 통신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kt m&s는 '코코넷 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통신 판매 대리점의 성공을 돕는 진정한 동반자이자 친구로 함께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wisdom99@donga.com

가맹점 수수료 부담 낮춰 수익성 개선에 앞장

피자 전문점 (주)반올림피자, 반올림피자 ★★★



(주)반올림피자(대표 마지막)의 반올림 피자가 '2024 국가산업대상' 피자 전문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3년 연속이다.

2011년 5월 'Korea Pizza No.1'을 지향하며 창립한 반올림피자는 2022년 6월 기준 전국에 약 360개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대표 피자 프랜차이즈다.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가맹사업 역량 강화에 힘써오며 4년 연속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도 선정될 수 있었다.

반올림피자가 최근 출시한 신메뉴 '레드올림 고구마'는 대표 메뉴인 반올림고구마피자와 함께 반올림피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해주고 있다. 레드올림 고구마는 달콤한 국내산 고구마무스 위에 고구마 블록을 듬뿍 얹어 고구마의 부드러움은 올리고 매콤한 칠리소스와 페퍼론치노가 더해져 중독적인 '맵단'의 조화를 선사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울러 반올림피자의 시그니처 메뉴인 반올림고구마피자는 입소문만으로 출시 11년 만에 누적 판매량 635만 판을 돌파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다양한 신메뉴 출시와 프로모션뿐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하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프로 듀서 겸 아티스트 지코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해 젊은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 피자의 기본인 도, 피자소스, 갈릭소스, 고구마무스 등 핵심 원재료를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 전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맛의 상향 표준화를 이끌어 '가성비'와 '가성비'를 함께 높이고 있다. 또한 경쟁업체와 비교해 약 25% 수준의 낮은 창업비용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2022년 기준 4억9000만 원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e쿠폰 수수료의 30%를 지원하고 e쿠폰 정산 주기도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변경하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협업 강화해 맞춤형 솔루션 제공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2024 국가산업대상' 법률 서비스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법무법인 린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 임진석 대표가 2017년 설립한 이래 '가장 빛나고 상서로우면서도 어질다'고 여겨지는 상상 속 동물 기린처럼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프로페셔널들을 꾸준히 영입해 국내외 변호사 125명, 전문 자격사·스태프 포함 188명에 이르는 규모로 지속 성장 중이다.

법무법인 린은 임 대표의 경영 철학에 따라 성과 평가 요소로 ①본인이 이룬 성과 ②다른 구성원의 도움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 ③본인의 도움을 바탕으로 이룬 다른 구성원의 성과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뛰어난 개인의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구성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공동체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로써 자신의 성장만큼 내 동료, 내 부서, 더 나아가 회사와 고객이 함께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법무법인 린의 구성원 모두는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겸허한 자세로 배움에 임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성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



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픈 스페이스를 도입했다. 구성원들은 아고라 광장에서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고, 긍정적으로 저항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며 서로의 관점, 지식, 통찰력을 배우는 한편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해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작업 환경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에 접근하고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최근에는 AI 법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위원회에서 AI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AI 기술을 '린'의 지혜와 통찰력에 접목해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린은 이 같은 인재상과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분야별 거물급 전문가와 스타급 변호사를 영입하며 매년 매출 상승폭을 확대해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2023년 3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했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

감사 품질-회계 투명성 제고

회계감사 한울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대표 신성섭)이 '2024 국가산업대상' 회계감사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2003년 소규모 회계법인으로 출발한 한울회계법인은 2024년 현재 320명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중견 회계법인으로 도약했다. 초기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대형 회계법인의 노하우를 흡수하며 품질관리 시스템 정착에 주력한 결과, 최고 품질 서비스 제공 업체라는 명성을 얻었다.

회계감사를 비롯해 세무, 경영 컨설팅, SOC 컨설팅, 외국 및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과 창의성, 도전 의식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부산, 창원, 대전, 광주에 지점을 설치하고 2015년에는 충청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해 크로 글로벌의 멤버 펌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울회계법인은 2019년 금융감독원 등록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2023년에는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회계법인 중 7위에 올랐다.

특히 공인회계사의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한 품질관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전방위 위험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사 품질 및 대한민국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품질 관리 문화의 정착으로 한울회계법인은 회계감사와 관련한 소송이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한울회계법인은 지난해 ESG 센터를 창립해 친환경 경영, 사회 공헌 및 투명한 지배구조 정책을 실행하고 ESG 서비스 수행 역량을 강화했다. 장애인 선수단 운영, 월드비전 나눔 문화 활동, KMI한국의학연구소와의 ESG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사회 기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통한 데이터 분석,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증대 등 회계 분야의 디지털화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회계 서비스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지재권 분야 원스톱 법률 서비스

IP 컨설팅 특허법인(유) 화우



특허법인(유) 화우(대표변리사 소재현)가 '2024 국가산업대상' IP 컨설팅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특허법인(유) 화우는 지난 50여 년 동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대한민국 대표 특허법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내외의 유수의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에 IP 분석 및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IP 서비스를 제공해 오며 그 명성을 쌓고 있다.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반 출원, 등록, 분쟁 해결 및 기술 자문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각 분야의 전문 변리사들이 중심이 돼 세부적인 업무 영역별로 전문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속 변리사로 구성된 전문 변호사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종합적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상표권·디자인권·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 등이 밀접하게 연관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 가치 평가, 식물 신품종 등록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경험을 통해 새로 떠오른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수준의 특허법인'으로 성장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및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특허사무소와 확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글로벌 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의 유수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IP 분석 및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법인(유) 화우의 전략적인 R&D 지원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업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연구 성과의 창출을 돕고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공공기관들이 주관하는 특허 조사·분석 업무는 물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P 컨설팅 업무 역시 20년 이상 수행하며 최신의 조사·분석 기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조사·분석 업무는 고객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업무로 진행되며 박사학위자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윤정 기자 ongho@donga.com